



가을에 검푸른색으로 열매를 맺는다

화단 및 분화용 율판나물 재배기술

율판나물

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Potted Plant of
Disporum sesile Native to Korea.



송정섭 | 이학박사

T.031-290-6140,
songjs@rda.go.kr, www.wildflower114.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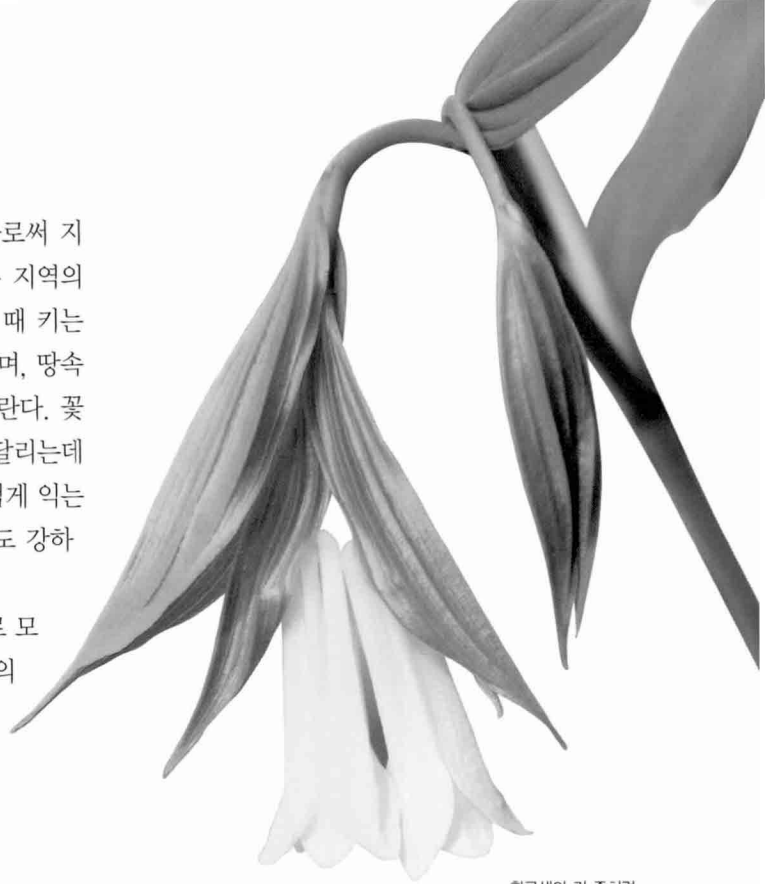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장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DA)

율판나물, 영명은 fairy bells,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 순을 나물로 쓰며, 꽃 모양은 요정의 벨 답게 아래를 향해 벨처럼 매달려 피며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벨을 울려 소리를 낼 수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봄 산을 걷다보면 낙엽수들의 그늘이 반쯤 드는 곳에 애기나리, 나리, 은방울꽃 등과 함께 군락을 이루며 산다. 차별하면서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상을 연상하게 하는 꽃이다.

1. 생태적 특성

운판나물은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써 지구상에 10~20종이 히말라야, 아시아 동남부 지역의 반 그늘진 곳에 주로 분포한다. 꽃이 피었을 때 키는 30~50cm이며 털이 없고 윗부분에서 갈라지며, 땅속 줄기는 흰색으로 짧으며 옆으로 뻗으면서 자란다. 꽃은 4~6월에 줄기 끝에 1~3개가 밑을 향해 달리는데 꽃 색은 주로 노랑색이다. 열매는 7~8월에 검게 익는다. 추위에 강하고 음지에 잘 견디며 건조에도 강하다.

운판나물은 꽃이 흰색, 노랑색, 황금색 등으로 모양도 아름다워 정원이나 자연학습장 같은 곳의 낙엽수 아래에 심으면 매우 좋다. 4월경 어린 순을 따서 소금물에 삶아 우려낸 후 나물로 무쳐먹는다.



황금색의 긴 종처럼 생긴 꽃이 참 아름답다.

애기나리, 은방울꽃 등과 어울려 군락을 이루며 산다.



2. 재배관리

가. 번식

종자로 번식할 때는 가을에 충실한 종자를 따서 과육을 분리한 다음 바로 모래에 뿌리거나 습기가 유지되는 낙엽수 아래에 곧바로 직파하면 95% 이상 싹이 나온다. 실생묘의 경우 꽃이 피기까지 3년이 걸린다. 가을에 분갈이를 할 때 근경을 잘라 삼목하면 쉽게 번식된다.

나. 정식 및 관리

윤판나물은 거름 끼가 많고 습윤한 그늘을 좋아한다. 나물 용이나 약용으로 대량 재배할 때에는 배수가 잘 되는 사질 양토에 50% 정도 차광하여 재배하는 것이 좋다. 정식은 봄에는 3~4월, 가을에는 9~11월에 하는데 높이가 20cm의 이랑을 만들어 포기사이 15×15cm 간격으로 심으면 된다. 심은 뒤 흙이 마르지 않도록 하며 완전히 균락을 이룰 때까지 제초를 잘 한다.


다. 화분재배

윤판나물은 꽃 모양이 특이해 종종 분경을 만들거나 화분에 기르기도 한다. 화분에 기를 때는 이른 봄부터 꽃이 필 때까지는 양지쪽에 두었다가 꽃이

진 뒤부터는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좋다. 추위에 강하긴 하지만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관리한다. 특히 겨울철에도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관리가 중요하다. 조건이 좋으면 키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거름 끼가 적은 마사토를 이용하는 것도 컴팩트한 분화를 만드는 요령이다. 뿌리의 발육이 대단히 강해서 매년 묵은 뿌리를 3~5cm 정도 잘라내고 분갈이한다.

라. 시비관리 및 병충해 방제

정원이나 화단에 기를 때는 심기 전에 부엽퇴비를 충분히 넣어주고 심은 뒤 생육을 보가면서 주생장시기인 4~6월, 9~10월에 4종복비를 1,000~1,500배액으로 타서 1주일 간격으로 옆면에 시비해주면 효과가 크다. 화분에 기를 때는 구비나 유기질의 덩이비료를 분의 크기에 따라 적당량 올려 두어 물을 줄때마다 조금씩 녹아 들어가도록 한다.

병해충은 잎마름병과 흑반병 피해가 나타나므로 곰팡이 방제용 살균제를 뿌려준다. 



눈높이를 맞추면 훨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